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아주신 곡식과 과일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 추수감사절 찬양예배가 저녁 7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대입 수능시험이 14일(목)에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공동체 김장은 21일(목)~22일(금)로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 멧쟁이학교 2학기 학부모 모임이 다음 주일(17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이명호 집사(따뜻한 사랑방) 모친 장례식이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 께 ( 추수감사절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석지인 전도사 ( 생일 감사 )

정연갑 · 이운순 집사 가정 ( 추수 감사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5 호

2024년 11월 10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감사의 조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관계에 있어서 꼭 배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를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것, 말을 처음 걸게하는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받을 때면 고개숙여 “감사합니다”를 가르칩니다.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받을 때나 자리를 양보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설날에 세뱃돈을 받거나,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을 만나 용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잊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처음이라 잘 못할 때는 아이의 머리를 숙여 인사시키면서 “감사합니다”를 따라하게 하거나, 부모가 대신 말하면서 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외국의 부모들도 “Please”, “Thank you”, “Sorry”를 마법의 단어로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존댓말이 없어 보이는 서양권의 문화에서도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할 때 “Please”를 붙여 말할 것을 강조합니다. “Pleas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발”로 번역되지만 그 뜻의 범위와 활용은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Please”를 붙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해를 구할 때 “Sorry(미안합니다.)”를 사용합니다. 개인의 공간과 시간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치는 상황이나 앞질러 가야 하는 상황에도 상대방의 공간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Sorry(미안합니다)”는 필수입니다. “Thank you(고맙습니다)”도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받았을 때나, 마음을 써주고, 배려를 해주었을 때도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말을 합니다.

이처럼 동서양에서 “감사합니다”의 표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일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었던 주식재료인 벼 수확이 다 끝나고 밭의 작물들도 다 거두어들이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 하곤 합니다. 동양권에서는 수확 전에, 서양권에서는 수확을 마친 후에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의 추석, 서양의 추수감사절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확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사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하게 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숨 쉬고 먹고 일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서 생활을 편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낫고 다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속이 아파서 밥을 잘 못먹다가 완쾌 되어서 식사를 할 때, 아플 때와 비교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질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되어 다시 만날 때도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새로운 것이나 마음을 받을 때 감사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회를 잃었다가 다시 하게 될 때도 감사를 합니다. 한 가지는 연음이 있을 때, 다른 한 가지는 결핍을 경험한 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어도,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외양간의 소가 없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하박국 3장 17-18절)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도록, 한해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기도 :

성경 : 에스겔 11장

제목 :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1. 내용: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What)

<문단구분>

1~13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규탄하시다

14~25절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다

2. 의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Why)

1)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을 따라서 떠나가셨다.

2) 부패한 지도자들은 혼란을 이용하여 안심하고 있었다.

3) 물리적으로 남겨졌다고 하여 남겨진 자들이 아니다.

3. 적용: 거룩한 삶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자. (How)

1)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자

2)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심하자.

3) 개인 경건생활에 힘쓰자

성서일기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난주에 교육관 외벽 바닥에 계속 물이 새는 문제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집사님의 논의 결과로 어제(토요일) 누수 전문업체가 방문하여 누수 탐지 작업을 하였다. 아침 9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정확하게 누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예배가 있는데 공사가 하루 만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두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도 함께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누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고, 불량 부분은 새로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할렐루야~). 사실 나는 어떻게 누수 위치를 찾는지도 궁금했는데 방법을 보니, 파이프에 가스(수소+질소)를 주입하여 탐침봉으로 가스가 새어 나오는 곳을 찾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처음 의심되는 곳을 팠더니 바로 그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그나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위치와는 사뭇 다른 곳이었다. ~♪ 네가 왜 거기서 나와 ~).

사실, 누수되어 건물 밖으로 흐르는 물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모두 다 의심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다양한 논리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감을 잡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작업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었다. 보이는 물을 찾는 데 보이지 않는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면서, ‘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스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한 것인 만큼, 우리들의 삶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누수되어 나오는 물처럼 신경 안 써도 누구에게나 보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하나 됨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새싹사랑방 서병욱 집사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0 : 1-5  
32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87, 589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고린도전서 15 : 8-11

설교자  
사랑방  
정재훈 목사

에베에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 ”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9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종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승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

선물의 자격. 고대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호의에 관한 책을 펴내었습니다. 호의와 은혜와 선물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책에서 은혜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선물은, 주기 전에 숙고하고 판단하여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은혜와 선물. 호의와 은혜와 선물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카리스’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카리스’를 받을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 은혜와 선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마땅한 자로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은 보상이 되고, 호의는 권리가 됩니다.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박영선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11월의 교육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한 달 동안 기후 위기로 위태로워진 세상을 어떻게 보듬고 살아갈지 생각하며 배우려 합니다.

수요일에 판교에 있는 환경생태학습원에 다녀왔습니다. 초록마을 파란마을 하얀마을로 꾸며진 학습원을 둘러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얀마을(태양력 풍력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고 동식물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도 잘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마을)로 바꾸어 가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목요일에는 감사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 명씩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았는데 풍성한 감사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열매와 곡식을 주시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주시고, 동물과 모든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튼튼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고, 좋은 부모님, 가족을 주시고, 꾸러기학교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여러 분들이 꾸러기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것도 기억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요리선생님, 노란차를 운전해주시는 이용신 장로님, 화장실을 고쳐주시고 감자떡(전분)을 만들어주신 나집사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네다섯 장 많게는 일곱 장의 그림을 그리고 붙여서 감사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꾸러기들의 모습이 기특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주 어린이는 대가족이 좁은 방 하나에서 복잡복잡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일은 식사

배움과 가르침

예절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입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고 준비해주신 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 옛날 조선시대에 왕비를 뽑을 때 마지막 보는 것이 밥먹는 모습이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빗대며 품위있게 음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서 실천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설명하고 각교실에 붙여 두었습니다. 어린이의 연령 때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시기이지만 한주동안 예절을 배운대로 지켜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고 설사 깜빡 하고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금세 시정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어른의 모습과 태도가 많은 부분 결정 될 것입니다. 식사까지가 예배다 라는 우리 교회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한주였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이제는 낮이라도 간식을 먹으려면 실내로 들어가게 만드는 추위가 점점 다가옵니다. 기침을 하거나, 패딩과 목도리로 무장한 멋쟁이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은 꾸준히 학기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멋쟁이들의 마음이 반영되었는지, 종강을 준비하는 모임도 밤늦게까지 한창입니다.

공동심화학습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름들 속에 담겨 있던 작품들과 에피소드들을 확인하고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노벨평화상 차례입니다. 열린수업 시간에는 '멋쟁이 감사제'를 안내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함께 나눌 때가 기대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월요일은 가정학습으로 보내고 등교합니다.

6학년은 이번 주에 수능을 볼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꽃으로 예배를 드리다.

제가 교회 강단 꽃꽂이를 하게 된 처음 동기는 1981년 겨울 광화문 거리를 걷다가 새문안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수요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아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함께 밝은 불빛 아래 강단에 장식된 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예배도 잘 참석하면서 성전 꽃꽂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꽃꽂이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기회가 된다면 곁에서 도와드리면서 꽃 쓰레기라도 치워드리고 싶은 마음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화부에서 전화를 주셨고 함께 봉사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꽃꽂이 하는 날 얼마나 떨리던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사랑방에서 꽃꽂이로 처음 봉사하게 된 것은 1984년 창립 예배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꽃이었기에 꽃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꽃꽂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꽃꽂이 형식으로 소재 배합과 조화, 예술성을 생각하며 꽃았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는 교회력과 절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절기에 맞추어 꽃을 준비하면서 꽃는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십자가 아래 놓여진 꽃을 바라보며 그동안 오랜 세월 '강단을 꽃으로' 참여해 주신 사랑방 식구들을 떠올려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진 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했지만 40년 동안 강단을 꽃으로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꽃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축복이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592장, 459장

성 경 : 마가복음 11장 20-25절

말 씀 : 용서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수단을 위해 >

러시아의 침공으로 2년 반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해 수단 내전이 국제적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하나됨을 위해 기도 >

- 다양한 모습의 교회와 공동체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구분 짓고 나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해

2) 수험생들을 위해

3) 아프신 분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듯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배추를 묶어주고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주었습니다. 배추 뿐 아니라 무와 파 등 김장때 사용할 작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동체의 여러 곳을 정비하는 중에 있고 교육관 누수문제는 원인을 찾아 해결 했습니다.

주 중에 교회 주관 장례식에 공동식구들이 여러 번 참석하셔서 유족들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영미 전도사>